

“‘비에’라는 실 뭉치 감는게 詩 쓰기”

‘마법사의 제자들아 꺾질을 깨고...’
영암 출신 조정 시인 시집 발간
저항 정신 계승한 생태시 주류
신화적 상상력과 현실적 감각



조정 시인

“문학의 원사(源絲)는 ‘비에’입니다. 공중이나 풀밭이나 사람들 눈 속에 커다란 실 뭉치가 공처럼 던져져 있고, 저는 그 끝을 붙들게 돼요. 그 실을 감는 게 제 시 쓰기인데 원사가 ‘비에’더군요.”

영암 출신 조정 시인은 시 쓰기를 그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많은 시인들이 정의한 시 쓰기와는 다른 느낌을 환기한다. ‘비에’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어쩌면 시인은 수많은 비에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문학의 베를’ 위에서 시를 짓는 것인지 모른다.

조 시인은 지난 2022년 시집 ‘그라시제라’로 제 22회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어린 시절 동네 어귀에서 들었던 할머니, 어머니의 말 등을 토대로 울림 있는 시를 창작했다. 작품이 모두 전라도 방언으로 돼 있어서 이색적인데다 구성전 전라도 말이 오래도록 여운을 줬다. 그 작품집이 발간된 뒤, 전라도 말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 등이 새롭게 환기된 바 있다.

조 시인은 얼마 전 시집 ‘마법사의 제자들아 꺾질을 깨고 나오라’ (이소노미야)를 펴냈다.

굳이 분류하자면 저항 정신을 계승한 ‘참여시’이자 ‘생태시’의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아마도 시인이 말한 ‘비에’와 맞닿는 말인 듯하다.

그는 “박세당 선생이 노자를 해석한 문장 중에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을 내가 모르고 내가 죽은 후의 일을 내가 모른다’는 내용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곳’ 뿐이지요”라고 작가



내가 돌아/ 슬픔이 독처럼
몸에 퍼졌다/ 직립의
슬픔과 배로 가는 슬픔이
서로 감염되어/ 산에 슬
픔이 가득했다(중략)/
허물 한 채에 적힌 결승
문자를 받아 읽었다/ 숲
이 커야/ 사람도 슬픔을
벗을 수 있다고

“허물”이라는 작품은 한편의 짙막한 서사를 담고 있다. 산길을 걷다 땅에 떨어진 골프공을 줍는데, 패마칩 골프장 문턱을 내려온 뱀이 손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직립의 슬픔과 배로 가는 슬픔이 서로 감염되어” 온 산에 가득한 슬픔을 느끼는 화자는 “숲이 커야 사람도 슬픔을 벗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신화적 상상력과 현실적 감각이 빛이낸 율미가 오래도록 전해진다.

또한 시편 곳곳에는 “불의와 갈망하던 힘이 쭉 빠져나간 공동이 실감되는” 허탈함과 우울감, 패배감 그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배어 있다. 시인의 다음 작품집이 기다려지는 것은 현란한 언어와 개인적인 일상사로 점철된 오늘의 많은 사들과 변별되는 지점 때문이다.

이소노미야의 정우성은 “민주주의를 농약처럼 약용하는 인간들에 맞서 숲을 지켜낸 시민들의 이야기를, 옥수수과 솔부엉이와 맹꽁이와 상수리나무와 힘없고 연약한 마을사람들이 연대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잃어버린 우리들의 춤을 깨네놓았습니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조 시인은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이발소 그림처럼’ ‘그라시제라’ 등과 ‘너랑 나랑 평화랑’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계종 ‘도암당 대사 진영’ 환수

지난달 미국서 국내로 운반...조계종 “백양사에 봉안”

대한불교조계종은 국외소재문화재단 등과 함께 국외로 유출됐던 ‘도암당 대사 진영’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단은 작년 11월 국외 경매시장에 출품된 ‘도암당 대사 진영’을 발견하고, 종단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진영(眞影)의 주인공은 도암 인정스님(1805-1883)인 것으로 확인됐다. 1864년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백양사를 중창(重創)한 스님이 다.

유출 시기와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한국전쟁 등 국내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계종은 전했다.

진영은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조계종은 진영을 조만간 백양사에 봉안할 예정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각진국사 진영(1825년) 이외에 현재 백양사에는 오래된 진영이 전하지 않는다”며 “입수한 그림은 백양사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입수한 그림은 백양사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나는 예술여행’ 부르며 달려갑니다

24일까지 방문시설 접수

신나는예술여행은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군복무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문화예술을 즐기기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단체가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공연을 향유할 기관(시설)을 모집한다. 문예위 누리집에서는 오는 24일(23일)까지 접수.

이번 공모에 앞서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심의 결과 아동 분야 45개, 특수 분야 13개, 청소년 분야 31개, 장애인 분야 16개 등 총 140개 예술단체를 선정했다. 이들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을 직접 찾아가 문화·시각·음악·연극·다원예술 분야 등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예위 관계자는 “올해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군부대에서 (사)타악연희원 아귀가 다원예술을 선보이는 장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참여 방문시설 자격을 완화했기에, 이전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부대,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등 문화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예술여행 사업에 많은 관심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영하 소설가와 ‘11시 음악산책’

광주예술의전당 25일 GAC 기획공연...인문학 토크+클래식

지난해 광주예술의전당이 오전 11시마다 선보인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은 오전에 클래식을 만나 마티네 콘서트 형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콘서트 가이드 김이곤의 인문학 토크와 라이브 공연을 결집한 이색적인 공연이었다.

올해도 ‘11시 음악산책’ 프로그램이 새로운 출연진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오는 2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의 첫 게스트는 소설가 김영하.

김영하 작가는 2017년 영화화된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을 비롯해 ‘빛의 제국’,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을 선보여 왔으며 tvN ‘알쓸신잡’, ‘알쓸신잡’ 등에 출연했다.

드보르작 현악 4중주 ‘사이프레스 5번 안단테’, 모차르트 ‘현악 4중주 제14번 볼 1악장’ 등과 맞물린 문학, 예술에 대한 김영하 작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김 작가와 관객, 연주자를 연결하는 진행자로 월간 객석 편집장을 역임하고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국지연(컴퍼니 연 대표)이 출연할 예정이다. 바이올린 연주는 서울예고, 오벌린음악대 학사 및 줄리어드 음대 석사를 졸업한 임성운이 맡는다.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객원 단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예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드레스덴, 뷔르츠부르크, 자브뤼켄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바이올리니스트 나승준도 출연한다. 비올라는 아르츠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양혜경, 첼로는 앨범 ‘편지’로 데뷔한 이호찬이 연주한다. 다음 공연은 5월 28일 배우 강석우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가 예정돼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콘서트 가



김영하 작가



국지연 컴퍼니 연 대표

이드로 참여하는 김영하 작가를 통해 그의 클래식과 예술에 얽힌 인문학적 사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밖에도 피아졸라의 ‘방각’, 슈베르트의 ‘저녁별’ 등 다양한 명곡들을 함께 감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석 2만 원, S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동구문화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재단(대표이사 문창현·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에 최종 선정됐다. 재단은 영월, 강진 등 10여 곳의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신규 지원 DMO로 결정됐다.

DMO는 지역주민과 관광분야 이해관계자,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관광을 주도하는 조직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1~2년차에 1억 원, 3~5년차 1억 5000만 원 등 최대 6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관광추진조

직별 맞춤형 사업상담, 벤치마킹, 홍보마케팅 혜택 등도 있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40대 청년층을 핵심 타겟으로 하는 취향여행 플랫폼 ‘덕질살롱’, 광주의 맛·멋·흥이 있는 휴먼콘텐츠 발굴 사업 ‘사람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성수기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광주 가보자 go’ 상품을 출시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